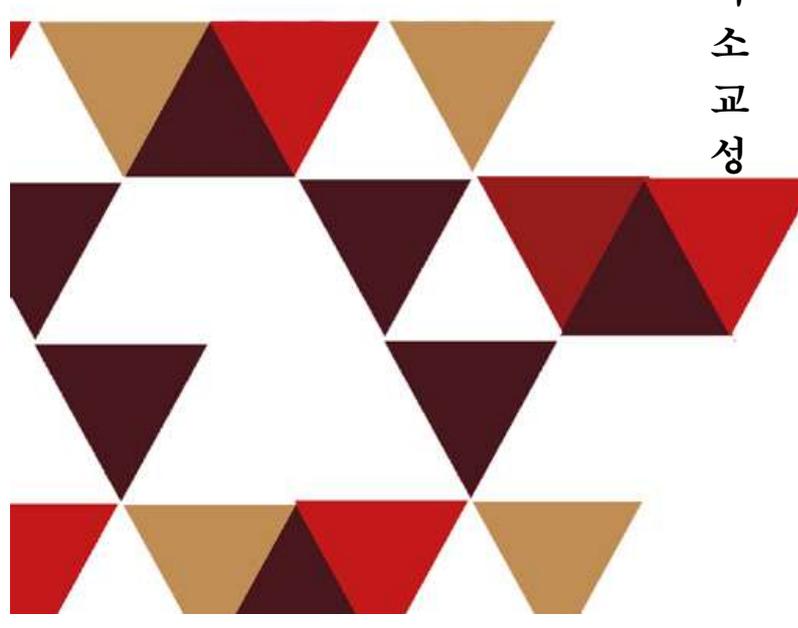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 김제를 중심으로 -

2014년 11월



과 정 : 제11기 핵심리더과정
소 속 : 김 제 시
교 변 : 19번
성 명 : 이 승 곤

목 차

I. 서 론	203
1. 연구의 필요성	203
2. 연구의 목적	206
3. 연구의 한계	206
II. 이론적 고찰	207
1. 노인일자리의 의미	207
1) 노인의 개념	207
2) 노인일자리의 개념	208
3) 관련법규	209
2.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212
1) 노인 취업의 필요성	212
2) 노인의 사회통합 방안 필요	216
3) 노인의 취업 욕구와 취업 활동	217
3.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220
1)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220
2) 우리사회의 대응	222
4.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223
1) 사업추진체계	223
2) 운영주체별 역할	224
3) 노인 일자리사업의 정책 목표	226
4)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	228

Ⅲ. 김제시 고령화 현황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ⅲ
1. 김제시 인구고령화 현황	231
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231
Ⅳ. 연구방법	233
1. 연구 대상	233
2. 연구 내용	233
3. 자료 분석 방법	234
Ⅴ. 연구결과 및 분석	236
1. 연구대상자의 특성	236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6
2) 연구대상자의 경제상태	236
3) 연구대상자등의 일자리 참여실태	238
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만족	242
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	242
2)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희망사항(개선사항)	246
Ⅵ. 결 론	250
참고문헌	258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221
<표 2-2>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228
<표 3-1> 김제시 인구 및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추이	132
<표 3-2> 김제시연도별사업현황	232
<표 4-1>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234
<표 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4
<표 5-1> 생활비 마련	237
<표 5-2> 일자리참여유형	239
<표 5-3>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희망 보수금액	246

그림 목 차

<그림 2-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224
<그림 5-1> 주거형태	237
<그림 5-2> 국민연금 수령여부	238
<그림 5-3> 일자리사업 참여이유	239
<그림 5-4>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240
<그림 5-5>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	240
<그림 5-6> 일자리사업 주당 참여일수	241
<그림 5-7> 일자리사업 1일 참여 시간	㉞
<그림 5-8> 일자리사업 만족도	242
<그림 5-9>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	243
<그림 5-10> 노인일자리사업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㉞
<그림 5-11>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근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㉞
<그림 5-12> 노인일자리사업 동료간 만족도	㉞
<그림 5-13> 노인일자리사업 불만족 사유	㉞
<그림 5-14> 노인일자리 참여로 경제적 도움여부	㉞
<그림 5-15> 노인일자리사업 주당 걱정(희망)일수	72
<그림 5-16> 일자리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싶은 걱정(희망)시간	72
<그림 5-17>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직종	㉞
<그림 5-18> 일자리사업 향후 참여 희망년수	㉞
<그림 5-19>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	㉞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와 개선사항에 관한 연구

- 김제시를 중심으로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는 또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가 되었다. 2008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인구의 10.3%인 500만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3%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급속한 출산력 감소로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는 서구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즉 노인인구가 7%에서 14%로 되는 속도는 선진국인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이태리 61년, 일본 24년에 비해 매우 빠른 19년일 것으로 보인다.¹⁾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가 이를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설사 사회가 이를 준비한다고 해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인류가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 및 의료비 증가, 요보호노인수발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체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을 갖게 된다. 2008년 현재, 노인부양비는 14.3%로 7명의 생산

1) 통계청, 「고령자 통계」 2005

가능 인구가 노인1명을 부양하는 실정이나 2020년에는 노인부양비가 21.7%로 증가하여 5명의 생산가능인구가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우리나라 전체 노인 인구의 30%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업, 어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여 산업 생산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인이 경제활동에서 제한받거나 실업상태에 처해있어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최근에 구조 조정 등으로 정년제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정년퇴직이나 은퇴 이후의 길어진 여생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노후의 소득보장 수단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대비수급자의 증가로 재정적 고갈을 겪게 되고, 고령화는 연금의 재정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근로자 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수는 감소하나,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수급자의 증가가 초래되어 연금 계정의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고령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출산율의 저하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연령에 해당하는 경제활동 인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노동인력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중 의 하나는 노동인력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문제이다. 노인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청·장년층에 비해 생산성이 낮으므로 노인 인구비중의 증가는 결국노동인력의 양적, 질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에 71.7%이었는데, 2001년72.1%, 2008년72.3%로 약간 상승하다가 2040년에는 58.4%로 2050년에는 55.1%로 급격하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 한다.³⁾

아울러 노인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는 층 이므로 노인 인구비중이 많게 되면 소비증가와 저축감소 등으로 투자가 어렵게 되어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경제가 하락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밖에 인구 고령화로 예상되는 문제로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가치 차이로 인해 가치 갈등도 발생하여 전체 사회의 통합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 가족 내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을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 할 수도 있다.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이와 같이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문제로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을 보장하여주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와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⁴⁾

즉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능력과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존의 기초수급노인들만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일반노인이 주 대상이 되며 노인을 단순서비스대상이 아닌 프로그램의 주체로서 접근하는 것으로 적극적 사회참여의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시행에 있어, 노인들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요구된다. 효과성이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해석 할 수는 없지만 만족도와 함께 고려되어지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있어서의 효과성이 최종 사용자의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및 개선 할 사항에 관한 조사 분석은 궁극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만족도를 토대로 한 실태파악은 물론,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효과적인 일자리를 구상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만족도와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때 노인들이 일자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2014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 및 노인들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만족도를 분석하고 직접 참여한 노인들이 인식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고찰을 토대로 바람직한 형태의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지역적 범위를 김제시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를 한정하였기 때문에 전 지역의 노인들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표본선정 시 엄격한 방법을 통한 무작위표집을 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 사회복지관 및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표집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자료수집방법으로 설문지를 통한 응답자의 자기보고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맹인 노인에 대해서는 1:1 면담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설명과정에서 변수들간의 관계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노인일자리의 의미

1) 노인의 개념

노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사회의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 그 기준 이상 이하지만 대체로 연령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즉 노인의 개념을 규정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연령에 의한 정의이며 그 외에 개인의 지각에 의한 정의, 법적인 정의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노년학회(IA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자각과 기능의정도, 사회적 역할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개념을 정의 하였는데, “노인이란,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생리적·심리적·환경적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하면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보았으며 자신을 통제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결핍된 사람”으로 정의 하였다.

법적인 정의로서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수급대상자는 노인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있으며 각종 경로 우대제도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의 경제 통계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만14세 이상 6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65세 이상의 인구를 노인으로 구분 짓고 있다. 결국, 노인이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사회의 인구,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생활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과정 전체의 한 부분이며 적어도 세가지면에서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2) 노인일자리의 개념

노인의일자리는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수행되면서 사업의주요 대상을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고령인력을 노동 시장에서 활용하지 못 할 경우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기본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으며, 미래사회는 노인이 일을 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문헌 고찰을 통하여 노인일자리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철호⁵⁾는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장하고 그들의 경륜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안과 밖에서 제공되거나 만들어지는 일자리라고 정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우선 직종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후 건강유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옴으로써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50대의 가족 주기는 자녀의 교육 및 출가 등으로 양육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다. 더구나 퇴직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 모두를 자녀를 위해 지출하게 되면 빈곤한 노후는 필연적이다. 이리하여 노후의 생활은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노인의 자녀 세대는 부모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 취업의 의의는

첫째, 노인 취업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다양한 노년기의 문제인 소득상실, 역할상실, 지위하락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의 취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대체 노동력으로서의 노인 인력 활용 문제이다. 산업현장에서는 노동력이

5) 양철호, “노인일자리와관련된몇가지문제들”, 「노인일자리마련정책토론회」, 2003.

부족하여 그 충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취업을 못해서 취업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더군다나 소산소사(小産小死)형 인구증가율의 변화는 생산인구의 격감과 심각한 노동 인구의 부족현상을 초래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체 노동력으로 노인 인력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관련법규

(1) 노인복지법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여가를 활용하게 하며, 사회에서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연장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그 동안 노인복지를 위한 끈질긴 법제화 운동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노인복지의 법제화 노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었고, 그 법안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론과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1년 노인복지법안을 작성하여 동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노인복지법을 법률 제3453호로 공포 하였다. 이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시행령은 1982년 2월 대통령령 제10331호로 확정·공포 되었다.

노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노인복지의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노인복지시책을 추진 할 때 운

영지침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공공시설 또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 되는 사업장의 이용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로우대제(동법 제26조 참조)를 실시하고, 또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동법 제23조 참조) 규정하고 있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87호 로 제정된 법률로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 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 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 정비에 노력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관련된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동법제7조참조) 규정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직업 지도와 취업알선 등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안정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무료직업소개 사업이 허가를 받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고령자 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동법 제11조 참조)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준 고용률은 당해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3”(동법 시행령 제3조 참조)으로 정하고,“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사업주”(동법 시행령 제4조 참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 기준 고용률 달성 의무는 노력의무이고 이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3) 고용보험법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고용보험법이 1993년에 국회를 통하여 1995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후 대책적 의미를 갖는 사회보험이다. 반면에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실업 보험의 요소들 이외의 노동자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는 노동시장 정책적인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로 나누어진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가 취업 할 때부터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여 원하는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안내하여 직업지도와 취업알선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 된 이후에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업내부에 있어서의 고용조정이 실업의 발생을 최소화 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 노동력의 합리적인 배치전환과 활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내의 직업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내에서의 근로자에 대한직업능력개발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용보험제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직업수행능력이 직장생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발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장이 단순히 일하는 곳 뿐만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고용보험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유길상, 이철수.1996)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들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전통적인 실직 기간 동안의 기본 급여 뿐 만 아니라 실직자의 직업훈련수당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

직업훈련 수강시에는 기본급여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기간 동안 기본급여를 연장해 주는 등 직업훈련 수강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두고 있다. 조기 재취업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기본급여에 안주하여 재 취업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있는데 고령자 고용촉진문제는 사회가 점차 고령화 되고 정년제 연령이 낮을 수 록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사회보장 비용을 증대시키며, 가계측면에서도 의료비 등의 지출을 증대시켜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오히려 효과적으로 정책내용으로 흡수 할 경우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정책적 배경이 있다.

그러나 고령자 고용 문제는 적절한 유인책이 없으면 고령자고용촉진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용보험의 한 부분으로 도입 한 것이다.

2.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

1) 노인 취업의 필요성

현대사회 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진리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인하여 취업의 기회가 배제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는 노화현상에서 오는 문제보다 인간의 생활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당하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산업화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시점에 노년기가 모든 것을 상실한 시기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성숙된 시기라는 인식하에 노후를 적극적이고 활기찬 생활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계속영위 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한다. 노년기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자세를 탈피하여 무엇인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고 영

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고령자의 인력활용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연금제도등 노후보장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소득보장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1) 노후 소득보장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생활은 대부분 가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가족이나 자녀에 의한 부양기능의 약화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이 더욱 요청된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자산수입 경제활동수입 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 수단이 결여 되어 있거나 불안정한 우리 실정에서 노인세대의 자립생활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노후 생계대책에 대한 노인 자신의 태도를 보면, 높은 자립도와 국가사회의 책임을 우선하는 반면 종래 높은 자녀 의존적 태도는 약해지고 있다. 높은 자립도를 나타내는 노인 세대의 노후 생계대책에 있어서도 연금에 의한 노후보장이 적고 부동산에 의한 생계대책이 높은 것은 노인의 노후 생활보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후 소득보장시책의 대표적 인 것이 국민연금제도인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자녀양육이나 노인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의 생계대책수단은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 종래의 가족 의존적인 부양태도는 지양되고 가족의 부양기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자립생활이 필요하고 따라서 노후 생계대책으로서 노인 취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노인 취업의 권리 충족

우리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은 사회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국가의 은급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또한 생존권은 단지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적인 인간의 삶에 대응하는 정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은 단지부양대상이어서는 안되며, 젊은 세대와 동등하게이사회에서 독립하여 자활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허용하는 한 일을 계속 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도 얻을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정년제의 합리성은 기업 측의 논리일 따름이며 근로자에 있어서는 해고와도 같다. 노동 능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무시한 일률 정년제는 노동권 생존권의 침해이며,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란 의미에서 평등의 원리에 반하여 불공정성을 내포한다.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도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를 개정하고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고령자의 고용촉진정책, 정년연장 지원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법들에서의 권리가 구체적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는 않으나 노인 취업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될 것이다.

(3) 사회적 부양비의 감소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노후의 자립 경제생활은 물론 사회적 부양비의 절감을 통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도달한 202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은 80.7세가 되어 현재의 정년 기준인 55세로부터 25년 이상의 세월을 직업이 없이 지내야 될 것이다.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의 저하에 따른 노인 인구의수 적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도 크게 증가하여 2000년 현재 노년 부양비 10.1%에서 2020년 21.7%, 2030년에서 37.7%로 크게 높아 질 전망이다⁶⁾ 2000년에는 생산 가능인구 9.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당 노인 1명, 2030년에는 2.7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서도 노인복지 비용의 부담을 과다하게 가중시켜 사회 전체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 될 전망이므로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사회보장비의 측면에서도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연금, 의료비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우리나라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도입했고, 1999년 4월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금제도 실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재는 수급자수와 연금 지출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연금 제도가 성숙되면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선진국과

6)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같이 연금수급자수와 연금 지급비용이 급증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노년 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 노인성 질병의 발생 등으로 말미암아 발병률, 입원율, 입원일수 등이 비 고령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며 향후 더욱 많은 의료비 지출의 압력요인으로 작용 된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노령 계층에게 비교적 관대한 복지수준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전의 노령 계층에 대한 관대한 복지수준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노령 계층의 보장수준을 실질적으로 감축 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과 실제로 사회보장 예산의 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통한 노인의 경제적 자립추구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장 부담증가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것이다. 즉,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의 기회와 고용안정 정책은 노인 개인이 생계유지 방편 뿐 만 아니라 여가선용, 건강유지, 사회적 역할기능의 유지는 물론 사회복지비용의 경감 차원에서 도 폭넓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것이다.

(4) 인적 자원의 활용

인적자원은 자본 및 물적 자원과 함께 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최대의 자산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현상은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력 인구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되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고령화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고령 인력의 활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감소되므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령자 취업 촉진정책은 중요하다. 특히, 현재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문제에 대해 해외인력, 여성인력, 군인력의 활용 등을 검토 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 인력활용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재고용이나 계속 고용을 통한 고령 유희 인력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방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어떤 내용의 직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체험과 숙지로 경험을 축적한다면 기능과 기술에 있어서 능숙해 질 수 있고, 지식이나 지혜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고령자의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 또는 기능과 기술은 우수한 인적자원으로서 기업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므로 고령자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기능이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고령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인적자원으로서 고령 인력의 활용과 더 나아가 부족한 노동인력에 대한 보충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최근 기업들이 구조 조정과정에서 중·고령자들이 더욱 많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연공서열 적 은임금 구조 때문에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따라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계약제 와연봉제, 성과급제의 도입 등 인사조직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약제, 연봉제가 확산되면 고연령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란 측면은 감소 될 것이며 축적된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가진 고연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확보와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보다 효과적 일 것이다.

2) 노인의 사회통합 방안 필요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인은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로부터 소외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 소외문제는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노인소외의 원인은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선퇴직을 통한 직장상실과 가정, 사회에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배우자나 가까운 주변사람들의 죽음을 통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소외와 상실을 극복하고 새롭게 삶을 재조직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해야 할 노년의 삶을 힘겹고 어둡게 보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의존자로서 남게 된다.

노년기의 취업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지나온 인생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평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참여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의무를 완수 할 수 있게 한다. 즉 노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기 자신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소외계층으로의 노인을 사회로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의 다른 구성원들을 전체로 보고 그 전체와 공통적 의미를 나누면서 상호작용 하고 있는 상태를 사회적 통합 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적 조직망에로의 통합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 심리적 욕구이다. 노인의 취업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생산적 노후생활은 노인의 사회적 조직망에로의 통합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최성재,2002).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현사회의 관심영역 혹은 사회적 요청 일 뿐만 아니라 노인 소외문제를 해결하는 노인의 사회 통합방안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미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여 노인의 소득을 보장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계층으로서 노인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노화와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 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의 취업 욕구와 취업 활동

(1) 취업 욕구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근로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신체적으로 노쇠해져 일할 능력이 없으면 몰라도, 아직 일할 여력이 있는 젊은 노인들의 취업욕구는 젊은이 못지않게 절실하다. 흔히 '노인의4고'라고 말하는 생활고, 무위고, 질병고, 고독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일'이라고 노인복지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도 고령자들의 취업욕구와 무관치 않다.

최근 청년 실업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령자들의 취업

육구 정책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에 용돈이라도 스스로 벌기 위해 일거리를 찾았지만 고령자를 고용하겠다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로 구인이 들어오는 직종은 단순직종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직종개발이 요청되고 있으며 고령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경비원, 건물청소원, 물품배달원 등 단순노무직이 많으며, 또한 주차관리원, 간병인, 운전원 등도 고령자들이 일하기 적합한 업종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예절 지도사, 전통놀이 지도사, 베이비시터 등이 틈새를 공략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2) 취업 활동

고령자의 취업 활동은 노인의 소득보장, 일에 대한 재미, 건강유지, 여가시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이상의 고령자,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 취업 또는 재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해도 그 취업 분야가 극도로 제한되고,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저임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현상과는 무관하게 노동시장에서는 정년 연령이 큰 변화 없이 55세로 제한되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노후복지 대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유능한 인력을 조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노후의 소득보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비용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노인취업은 일반적으로 소득보장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는 건강유지와 여가시간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에서의 노인 취업문제는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노인 취업에 대한 정책도 대단히 빈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노인문제는 노화현상에서 오는 문제보다도 인간의 생계수단인 노동으로부터 배제 당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필요로 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배경은 생계와 관련된 긴박한 사

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령자에 대한 고용정책의 개발을 그들에게 소득을 확보 해 주고 유용감을 안겨주며 건강증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으로써 노인복지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안의 강구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많으나 이들에게 일할 기회와 장소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다. 또한 취업노인으로서 계속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상당 수 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노인 경제활동 추이

노인들의 취업 활동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으로 노인의 직업소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동안 급진적인 사회, 경제발전과 보건,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연장되는 추세이며,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향상되고 있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 하고자하는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직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여생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이후 증가하다가 2003년에 28.7%로 감소하였다. 원인은 취업알선의 비중이 낮아진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4년 참가율은 29.8%로 2003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인 경제활동 인구는 차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자, 즉 노인은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스스로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를 찾으면 경제 활동인구로 편입된다. 즉 고령자의 경우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서 취업자,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일을 찾으려는 노력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 된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100% 취업자다.

3.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1)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고령화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1년 62세에서 2005년 78세까지 높아졌으며, 2020년에는 81세로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과거에는 여성들이 대부분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에만 전념 하였으나 최근에는 직장을 갖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한 명이나 두 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는 전체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을 크게 높이고 있다.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에 따르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society),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society)로 분류 된다.⁷⁾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7.2%)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이후 8년 후인 2026년에는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편입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소홀 할 경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그로 인한 경제 성장둔화,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관련 재정지출 급증, 연금 및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등을 초래하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청장년층의 노인부양 부담증대는 청장년층의 소비증가를 제한하게 된다. 또한 제한된 소득 및 자산하에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고령층이 많아질수록 경제 전체적인 소비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한편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노동인구도 고령화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령화는 총 수요의 감소, 노동 투입의 감소 등을 통해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7)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고령화는 정부 재정수지도 악화시킨다.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통상 저축한 돈이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노후대비를 하지 못한 고령층은 어쩔 수 없이 정부나 사회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히 핵가족화 등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 인구에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인구 감소로 조세수입은 줄어들게 되므로 재정수지가 악화 될 수밖에 없다. 고령 인구가 많아져 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금 지급 능력도 크게 악화 된다.

우리나라에서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으로 중요한 요소는 평균수명의 연장에 있다. 아래<표2-1>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71년에는 62.3세였으나 1981년에 66.2세, 1991년에 71.2세, 2001년에는 76.5세로 점차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향후 2010년에는 78.8세, 2020년에는 80.7세로 증가하여 소위 인생 80년의 장수 사회(longlivedsociety)를 맞이 할 전망이다

<표2-1>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 (단위:세)

구분	1971	1981	1991	2001	2010	2020	2030
평균	62.3	66.2	71.2	76.5	78.8	80.7	81.5
남	59.0	62.3	67.7	72.8	75.5	77.5	78.4
여	66.1	70.5	75.9	80.0	82.2	84.1	84.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반적인 노인문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렇다고 적극적인 정책마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권자들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의식의 미 전환에서 오는 과행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보다도 더 낡은 것이라고 개탄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인 인구의 급증으로 경제적으로는 경제 활동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노인 부양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보건 의료적 측면으로는 노인 질환에 의한 개인·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노인 보호부담이 증가 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현재의 경제 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 이므로 전반적인 사회발전에 위험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만약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실시하지 않는다면 1990년대 후반 IMF체제하에서 겪은 고통보다 더 한 고통을 겪어야 할 상황이 도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 문제 중에서 노인문제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빈곤문제 즉, 경제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빈곤 노인의 증가는 가족기능의 약화, 사회적 부양능력의 감소,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미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인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우리사회의 대응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공적소득 보장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할 때 적어도 현재 내지 단기적으로 고령자 고용문제는 정책의 우선 순위면에서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은 순위가 부여 되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우호적인 편이 아니다.

첫째, 정년이 너무 이른 나이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의 기업들이 55세를 전후해서 정년을 설정하고 있음으로써 그 연령에 도달하면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그나마 ‘사오정’, ‘오륙도’란

유행어가 함축하듯이 실제로는 정년까지 고용되는 근로자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서구에서 고령자 고용문제는 사회보장제도 발달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서 조기 퇴직의 대량 발생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증대 및 그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의 가중의 측면이란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 수요의 부족으로서 실업문제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다.

셋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이태리,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45~65세 연령층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OECD,1998). 이는 고령자들이 인적 자본면에서 고용 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고령자 고용관련 비우호적 상황들을 감안 할 때 OECD 국가들에서 취하고 있는 고령화 관련 개혁조치들 즉,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된 퇴직 인센티브효과의 제거내지 완화정책, 고용유지정책, 구직관련 정보제공 및 직업알선 정책, 평생교육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정책들 중 상당수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거나 노동시장상황의 차이로 인해 효과면에서 상당히 제한적 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고용정책들과 함께 고령자 고용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조치들이 강구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령자 고용문제 해소책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1) 사업추진체계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2-1>에서와 같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사업본부, 사업수행기관간 사업계획수립에서 참여자모집, 사업수행에 이르기까지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예산지원이 최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림2-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4

2) 운영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① 노인일자리정책을 결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한다.
- ②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예산, 인력등)하고 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① 전국 노인일자리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총괄 지원하고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간 연계·조정하여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심사,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원한다.
- ② 또한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지원 및 실적을 관리하고 노인 인력에 대한 수급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노인인력D/B 및 업무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3)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 ① 지역 특화모델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 자원 (참여노인, 실무자) 개발과 정보화를 통한 인력 풀구축 및 제공한다.
- ② 시·도별 노인 일자리경진대회(박람회등) 개최를 지원하며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연계 활용한다.

(4) 광역자치단체

- ① 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심사한다.
- ② 시·도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등) 개최하고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을 교육한다.

(5) 기초자치단체

- ①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심사하며 사업 수행기관선정과 수행기관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 ②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인면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수행, 참여자 통합 소양교육을 실시 지원(민간수행기관연계)하고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등) 개최를 지원한다.

(6) 사업수행기관

- ① 노인 일자리사업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관련 제반업무 수행한다.
- ②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 확인 등 참여자에 대하여 관리하고 정기간담회 개최, 만족도조사, 사업자체 평가회 등을 실시하며 사업관리, 참여자 관리, 보수내역 등에 대한 각종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 한다

3) 노인 일자리사업의 정책 목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경쟁력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비생산계층으로서 향후 사회적 부양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노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생산계층으로 전환, 유지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위변화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이다.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목표 집단은 65세에서 74세의 연령 집단으로 노인일자리 개발수요 추계에 따르면, 이들 중 취업 할 의사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노인의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3년 노인일자리 24만개를 지원하고 2014년에는 31만개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4).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은 사회적 기여를 통한 사회통합적 의미가 강하고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은 소득 창출의 의미가 강하다. 물론 공익형의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20만원의 가치는 공적소득 보장체계가 성숙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노인의 소득보장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 두 가지 목표, 즉 사회통합과 소득 창출을 구분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지향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목표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적 일자리

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공익형일자리의 성격을 점검하고 이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과 이를 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일자리가 노인,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지니는 가치와 유용성을 알려서, 참여하는 노인에게는 자긍심을 높이고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포함 된다.

둘째, 소득창출을 지향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목표는 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년 연장, 연금 차별금지법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기존 고용제전환 등 제도정비가 포함 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여기에 해당 된 다고 볼 수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소득 창출을 지향하는 일자리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우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공공·민간기관과 기업이 노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소득창출을 지향하는 일자리로서 시장 참여형 일자리의 경우,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영전략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 참여형 일자리의 개요를 살펴보면, 공동창업이나 소규모사업단 운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노동시장내의 일자리로 사업초기에 사업비와 참여자 임금을 보충·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정착되고 독립 기업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장 참여형 일자리는 노인 스스로 일감을 수주·배분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자치성과 공동체성, 지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영역 으로서 현재 선진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수익과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시장 참여형 일자리가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여건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절한 정책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표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 분야 2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2-2>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구 분		유 형	설 명
노 인 일자리 사 업	사 회 공헌형	공익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 장 진입형	공동작업형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2014),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 보건복지부

첫째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구분 된다.

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업무영역 환경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창출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로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 제공으로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하고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등에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의 종류로는 아동안전보호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 환경개선보호사업 문화재 관리사업 공공질서 계도사업 및 도서관관리사업 공중이용시설관리지원사업 행정조사보조지원사업 산불예방사업 지방세 고지서 송달사업 등이 있다.

교육형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이다.

사업의 종류로는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노노교육강사 파견사업, 취미활동강사, 파견, 체육 건강활동 강사 파견사업, 문화재해설사업, 숲생태 해설사업 등이 있다.

복지형 일자리는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 적합형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이다.

사업의 종류로는 거동불편 노인돌봄지원사업, 노노케어,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아동·청소년보호지원사업, 주거 환경개선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둘째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은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이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하며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 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로는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주례사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가사도우미파견사업,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농어촌 일손도우미 파견사업 등이 있다.

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 종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로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종류로는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특산물 제작 및 판매사업, 공산품 제작 및 판매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파트택배 세차 및 세탁사업, 지역 영농사업 등이 있다.

창업모델형은 구매력 있는 노인 세대의 등장에 대비 노인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노인 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창업 장애요인 분석 및 제거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를 말하며 정부가 노인들에게 시장 보호된 시장포함에 재진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노인 적합 창업아이템의 보급 가능성을 타진하여 모델화하고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Ⅲ. 김제시 고령화 현황 및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1. 김제시 인구고령화 현황

김제시 인구 및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추이를 보면 <표3-1> 같이 2012년도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4.8%로 2012년에 비해 0.9% 증가하였고, 5년 전인 2007년에 비해 3.2% 증가하여 해를 거듭 할수록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는 하고 있다.

<표3-1> 김제시 인구 및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인구	98,740	97,012	95,940	95,557	94,623	93,970
65세이상	21,374	21,634	21,948	22,332	22,622	23,295
구성비	21.6%	22.3%	22.9%	23.4%	23.9%	24.8%

자료 : 김제시 통계연보 「2007-2012년

2.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도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적으로 계속 성장을 이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실적을 살펴보면 총 967명 1,516 백만원, 2013년에는 총 1,120명에 2,319 백만원, 2014년도에 총 1,522명에 3,109백만원의 예산을 집행 이는 2012년에 비해 참여 인원이 555명(57.4%)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

<표3-2> 김제시연도별사업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예산액	참여인원	수행기관	비고
2012년	1,516	967	28개 기관 (노인복지회관 외)	
2013년	2,319 (▲803)	1,120 (▲153)	”	
2014년	3,109 (▲790)	1,522 (▲402)	”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전라북도 김제시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만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 3일간 실시하였으며 전라북도 김제시청의 지원으로 시행하였다 총60명에게 배부하여 문자해독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서는 직접 기입하는 방법과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연령이 높고 문자 해독이 어려움이 많은 노인에게는 노인일자리시행기관 업무담당자의 도움으로 실시하여 50부가 회수되어 84%의 응답을 보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만족과 생활태도에 대한 변화 및 개선방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영은⁸⁾ 서수원⁹⁾이 사용한 참여만족과 개선방안에 관한문항을 재구성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인용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조사를 위한 주요 설문내용으로는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4 문항 재정적 상태 3문항 참여 실태 6문항 참여만족문항 6문항, 생활태도 변화 및 희망 사항, 개선사항 등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구성내용은<표4-1>과 같다

8) 이영은2009, 한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9) 서수원2007,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대학원석사학위논문

<표4-1>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

구 분	문항구성내용	문항번호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동거형태	1-4
재정적 상태	주거형태 월 생활비 및 마련 연금수령 여부	5-7
참 여 실 태	참여동기 일자리유형 월평균소득 참여 횟수 참여기간 및 시간	9-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	사업참여만족 소득만족 작업환경만족 근무시간/작업내용만족 불만족사유 동료간만족	15-20
생활변화 및 희망사항	경제적 도움여부, 희망보수 및 직종, 사업일수, 사업시간 개선사항 등	21-28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실태와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희망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4-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자	36.0
	여 자	64.0

	구 분	빈도	백분율(%)
연 령	60~64세	2	4.0
	65~69세	4	8.0
	70~74세	17	34.0
	75~79세	17	34.0
	80세 이상	10	20.0
학 력	무 학	29	58.0
	초등학교 졸업	14	28.0
	중학교 졸업	7	14.0
	고등학교 졸업	0	0
	전문대 졸업	0	0
	대졸이상	0	0
동거 구분	기혼자녀와 함께 산다	1	2.0
	미혼자녀와 산다	4	8.0
	부부만 산다	17	34.0
	혼자 산다	28	56.0

V. 연구결과 및 분석

1. 연구대상자의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4-2>과 같이 총 50명중 성별로는 여자 일자리 참여 노인이 32명(64.0%), 남자 노인이 18명(36.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74세, 75~79세가 각각 17명 34.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80세 이상 노인이 10명 (20.0%), 65 ~ 69세 4명(8.0%), 60~64세미만이 2명 (4.0%)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무학이 29명(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14명 (28.0%), 중졸 7명 (14.0%)순 이었다.

가족들과 동거 여부로는 혼자 사는 노인이 28명(56.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 17명(34.0%), 미혼자녀와 산다가 4명 (8.0%), 기혼자녀와 함께 산다가 1명(2.0%)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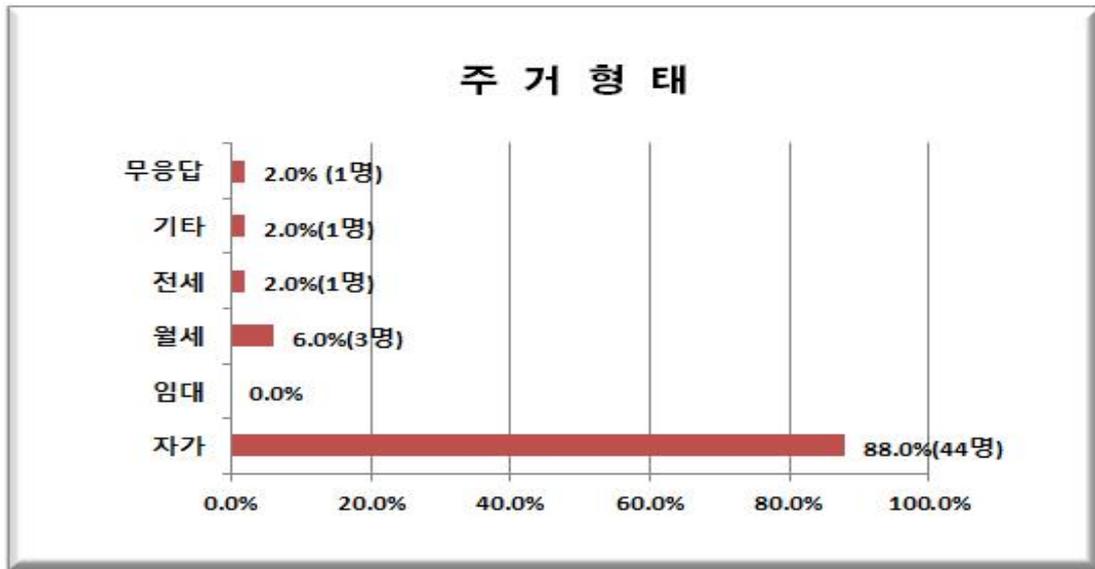
2) 연구대상자의 경제상태

연구대상자의 경제 상태 분석결과는<그림5-1>, <표5-1>, <그림5-2>와 같다. 주거형태는 자기 소유가 44명 (88.0%)로 가장 많았고 월세 3명 (6.0%), 전세 1명 (2.0%), 기타 및 무응답 각각 1명(2.0%)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마련 형태는 본인의 재산(퇴직금, 저축, 연금 포함)으로 생활비 마련 이 23명(4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3명 (26.0%), 자녀의 지원이 9명(18.0%), 정부의 생계 지원금 4명(8.0%), 기타 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등의 수령여부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28명(5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금 미수령자가 20명(40.0%)으로, 개인연금을 받고 있다가 2명(4.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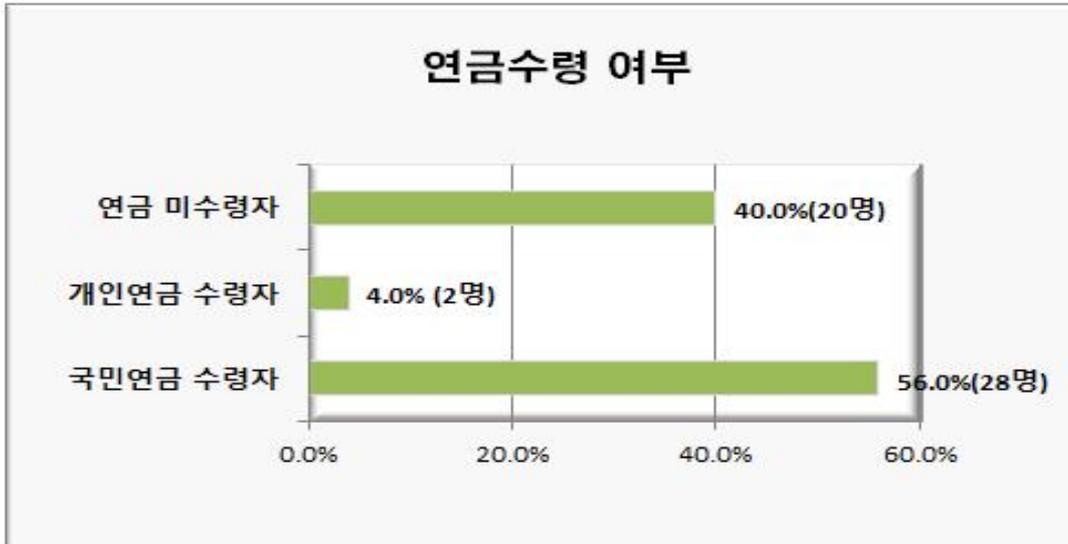
<그림 5-1> 주거형태



<표5-1> 생활비 마련

구 분	항 목	빈 도	백분율 (%)
생활비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13	26.0
	본인의 재산(퇴직금,저축,연금포함)	23	46.0
	자녀의 지원	9	18.0
	정부의 생계보조	4	8.0
	기 타	1	2.0
합 계		50	

<그림5-2> 국민연금 수령여부



<그림5-1>, <표5-1>, <그림5-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거형태가 본인 소유가 절반이 훨씬 넘고, 생활비 마련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본인의 재산이 72%를 차지하여, 본인 스스로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자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자 또한 28명(56.0%)로 절반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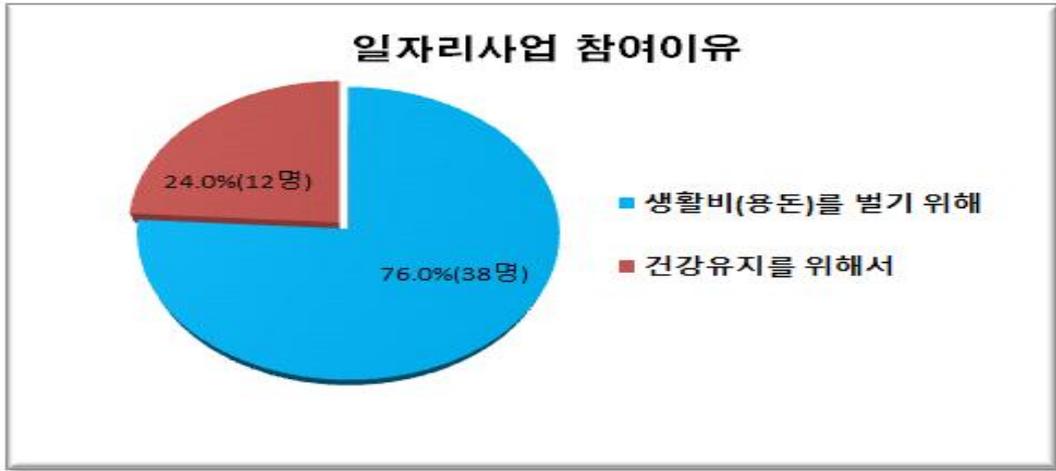
3) 연구대상자들의 일자리 참여실태

연구대상자들의 일자리사업 참여 실태는 일자리사업 참여이유, 일자리사업 참여유형,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일자리사업 참여기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일자리사업 참여이유는<그림5-3>과 같다.

연구대상자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마련 38명(76.0%)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2명(24.0%)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3> 일자리사업 참여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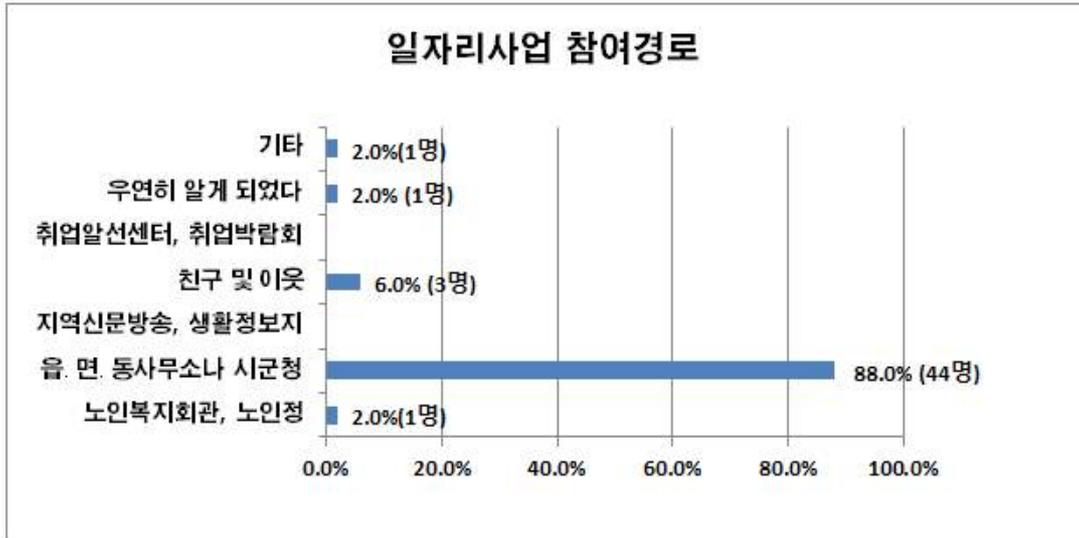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일자리 유형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표5-2>와 같이 공익형에 참여한 노인이 45명(90.0%), 다음으로 복지형 6명(6.0%), 인력파견형 2명(4.0%)순으로 나타나 공익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2> 일자리참여유형

구 분	항 목	빈 도	백분율(%)
일자리 유형	공익형	45	90.0
	교육형	0	0.0
	복지형	3	6.0
	시장형	0	0.0
	인력파견형	2	4.0
합 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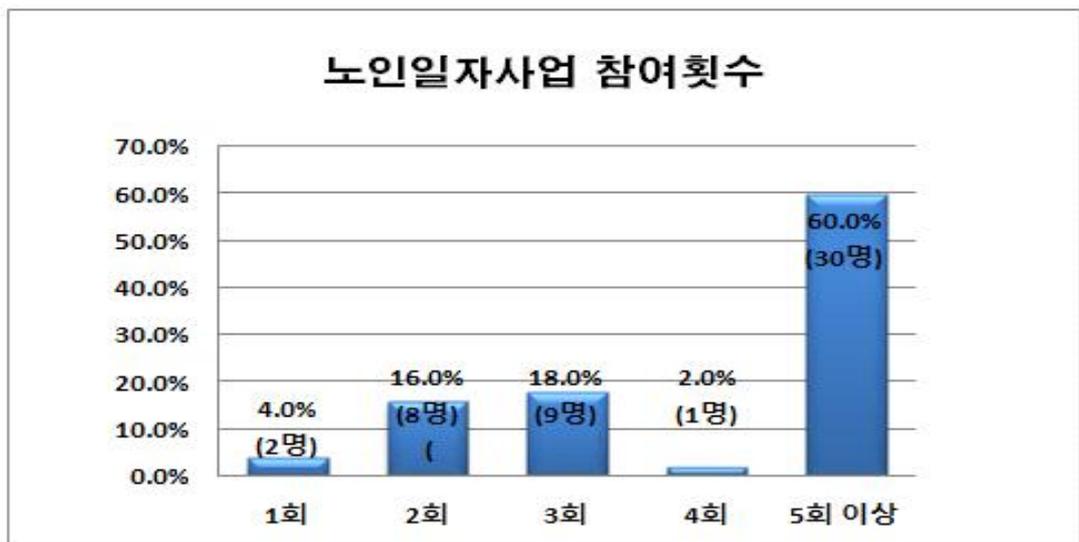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와 관련한 응답에서는 <그림5-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을 통해서 알게 된 경우가 44명(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친구나 이웃을 통해서가 3명(6%),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정, 우연히 알게 된 경우, 기타가 각각 1명(2%) 순이었다.

<그림5-4> 일자리사업 참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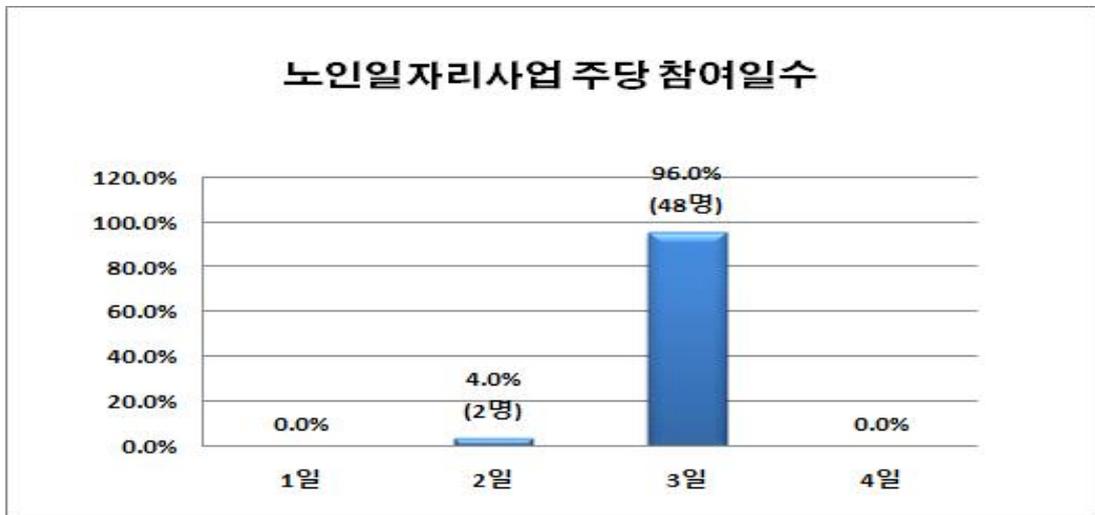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횟수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그림5-5>과 같이 일자리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사람이 30명(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회째 9명(18.0%), 2회째 8명(16.0%), 1회째 2명 (4.0%), 4회째 1명 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5-5> 일자리사업 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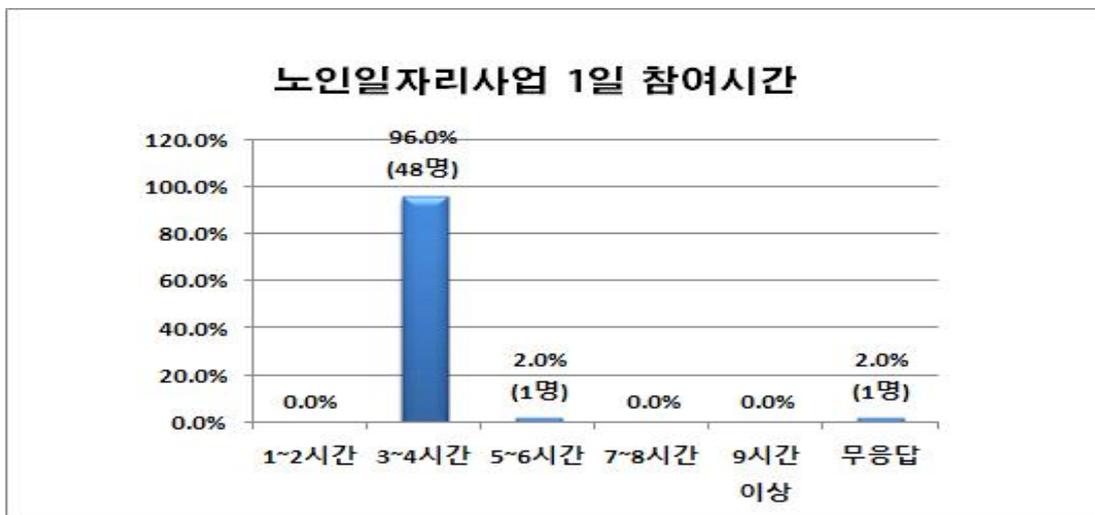


그 동안 참여했던 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의 주당 참여 일수 및 참여 시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5-6>과 같이 주당 3일이 48명(6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 2회가 2명(4.0%)으로 주당 참여일수는 2~3일 이었으며, 1일 참여 시간은 <그림5-7>과 같이 하루 3~4시간이 48명(96.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5~6시간이 1명(2%)과 무응답 1명(2%)으로 나타났다.

<그림5-6> 일자리사업 주당 참여일수



<그림5-7> 일자리사업 1일 참여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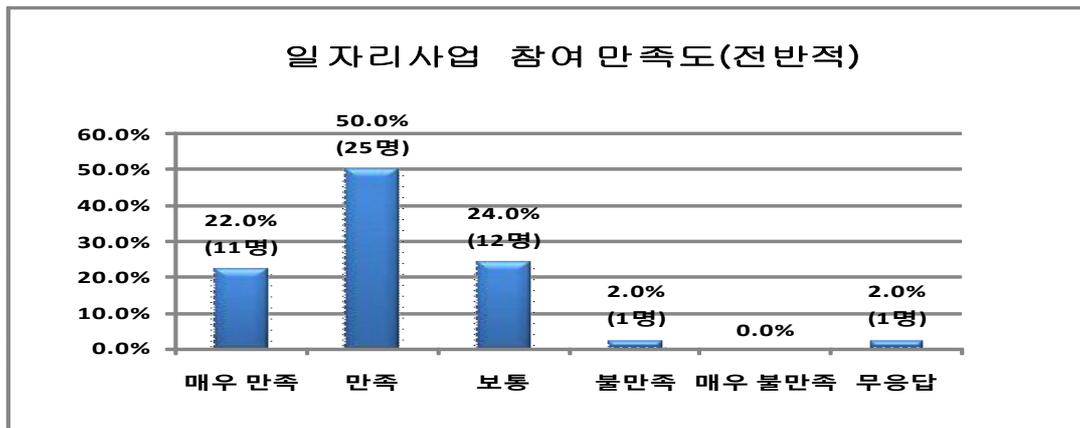
2.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만족

본 연구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식하게 된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고자하였다. 일자리사업 관련 만족도는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 일자리사업 소득에 대한 만족, 일자리사업 작업환경 만족, 일자리사업 근무시간/내용만족, 일자리사업 동료 간의 만족, 일자리참여 후 경제적 도움여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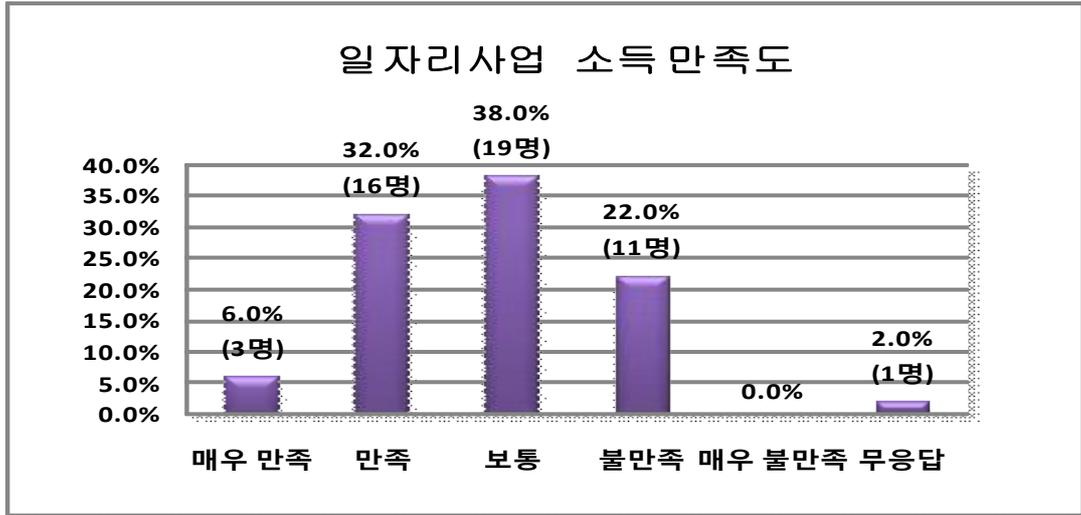
일자리사업 참여 후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그림5-8>과 같이 만족한다가 25명(50.0%), 다음으로 보통이다 12명(24.0%), 매우 만족 한다 11명(22.0%), 불만족 한다 1명(2.0%), 무응답 1명(2.0%) 순으로 나타나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5-8> 일자리사업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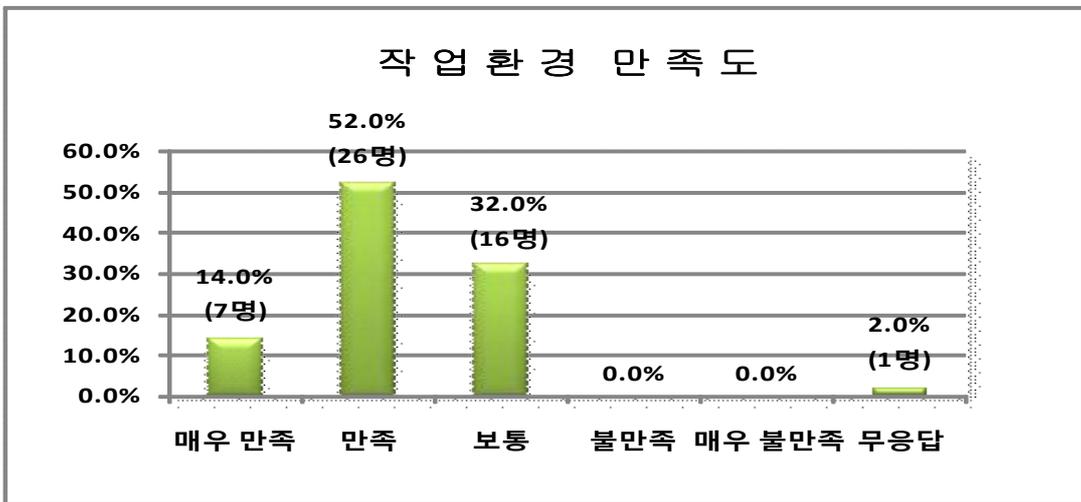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림5-9>와 같이 보통이다가 19명(38.0%), 만족한다가 16명(32.0%), 불만족 11명(22.0%), 매우 만족이 3명(6.0%), 무응답이 1명(2.0%)순으로 나타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5-9>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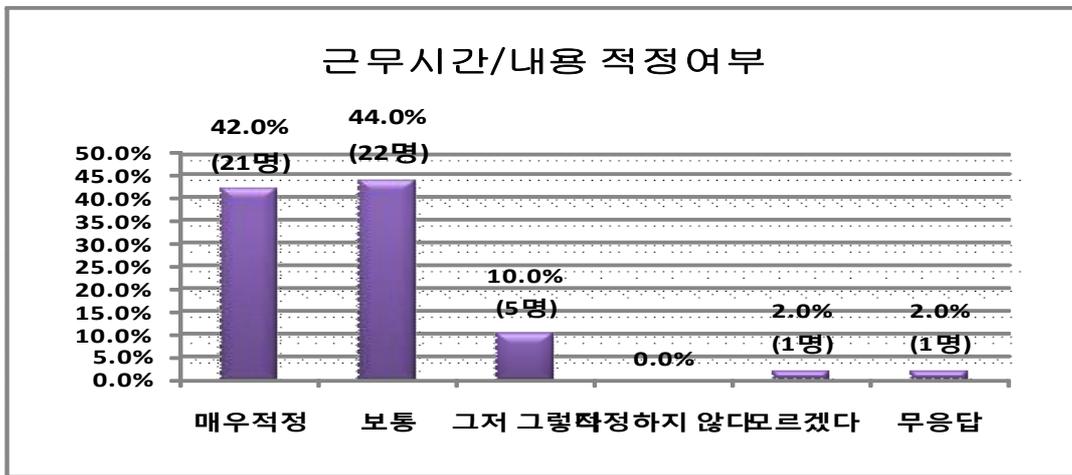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의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그림-10>와 같이 만족한다가 26명 (52.0%),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16명(32.0%), 매우 만족한다 7명(14.0%), 무응답 1명(2.0%) 순으로,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5-10> 노인일자리사업 작업환경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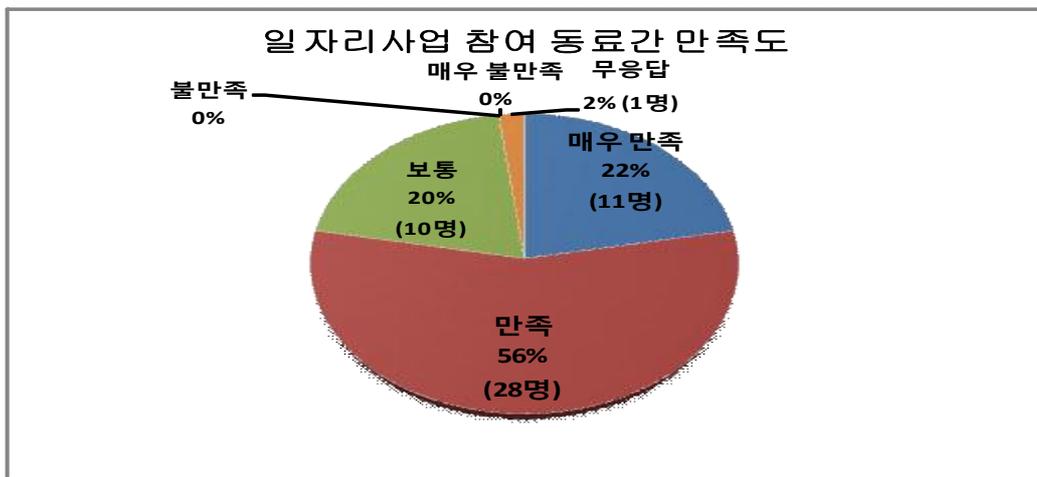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의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는 <그림5-11>과 같이 매우적정 21명(42.0%), 보통이다 22명(44%), 그저그렇다 5명(10.0%) 모르겠다 1명(2.0%), 무응답 1명(2.0%)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5-11> 노인일자리사업 근무시간/근무내용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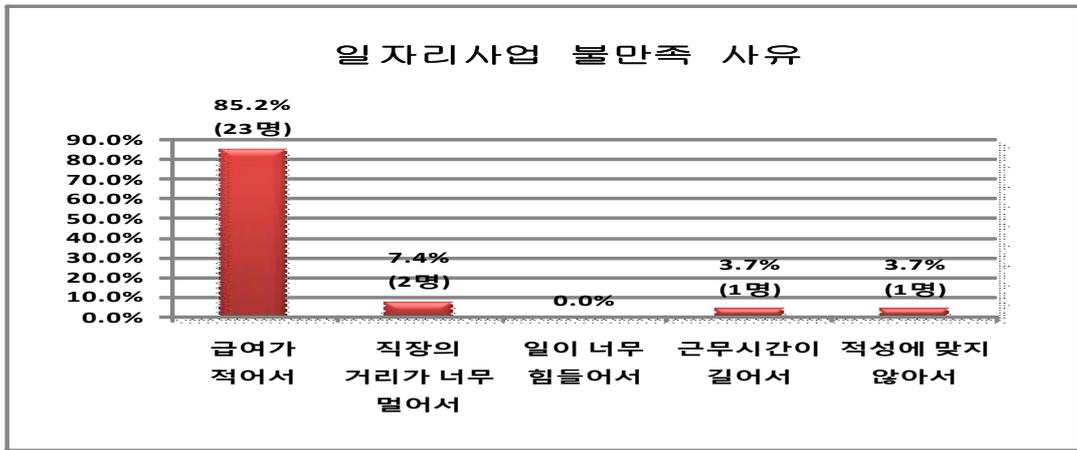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에서 동료 간의 만족도 분석결과는 <그림5-12>에서와 같이 만족한다가 28명(56.0%), 매우 만족한다 11명(22.0%), 보통이다 10명(20.0%), 무응답 1명 (2.0%) 순으로 나타나 동료 간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2> 노인일자리사업 동료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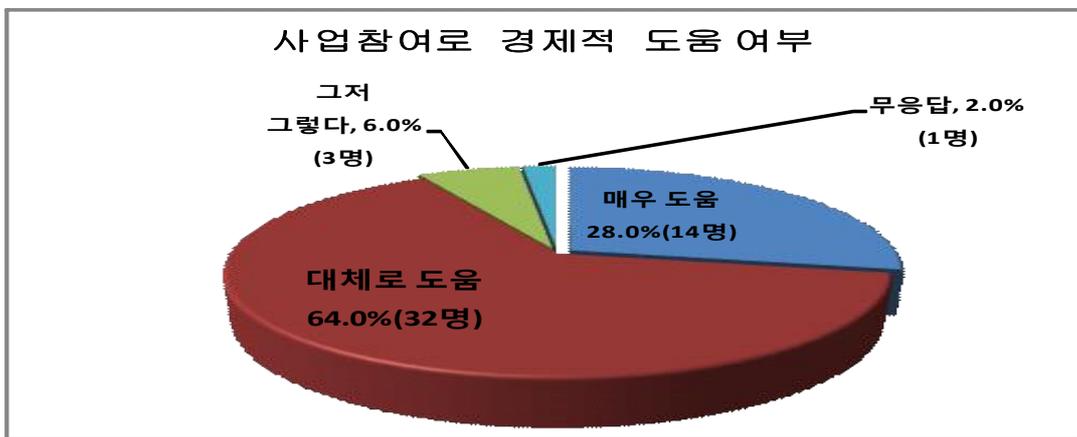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에 있어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 전체 50명중 27명(54.0%)이 응답하였는데 분석 결과는 <그림-13>와 같이 급여가 적어서가 23명(85.2%)으로 가장 많고, 직장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가 2명(7.4%) 근무시간이 길어서1명(3.7%), 적성이 맞지 않아서 1명(3.7%)순으로 나타나 급여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5-13> 노인일자리사업 불만족 사유



일자리사업 참여 후 경제적으로 도움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그림5-14>와 같이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가 32명(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명(28.0%), 그저 그렇다 3명(6.0%) 무응답 1명(2.0%)순으로 나타나 사업 참여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5-14> 노인일자리 참여로 경제적 도움여부



2)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희망사항(개선사항)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희망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원하는 보수 금액, 일자리사업형태, 일자리사업 주중 희망일수, 일자리사업의 하루작업시간, 추후 희망 년수, 일자리사업 중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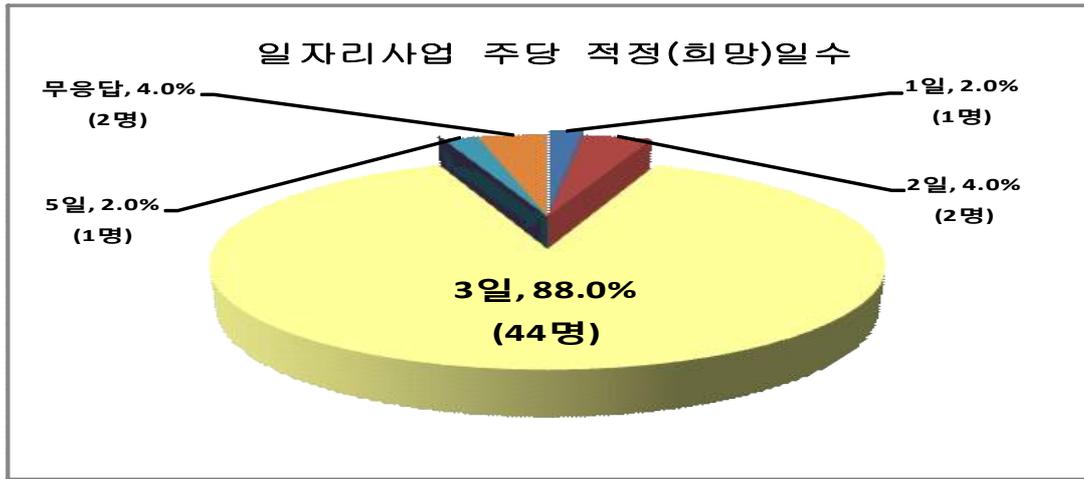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보수 희망금액 조사 분석결과는 <표5-3>와 같이 20~40만원미만이 38명(7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60만원 미만 8명(16.0%), 20만원 미만이 1명(2.0%), 무응답 1명(2.0%) 순으로 나타나 현재 받는 보수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이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3>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희망 보수 금액

구 분	항 목	빈 도(명)	백분율(%)
희망 보수 금액	20만원 미만	2	4.0
	20~40만원 미만	38	76.0
	40~60만원 미만	8	16.0
	60~100만원 미만	1	2.0
	100만원 이상	0	0.0
	무 응 답	1	2.0
합 계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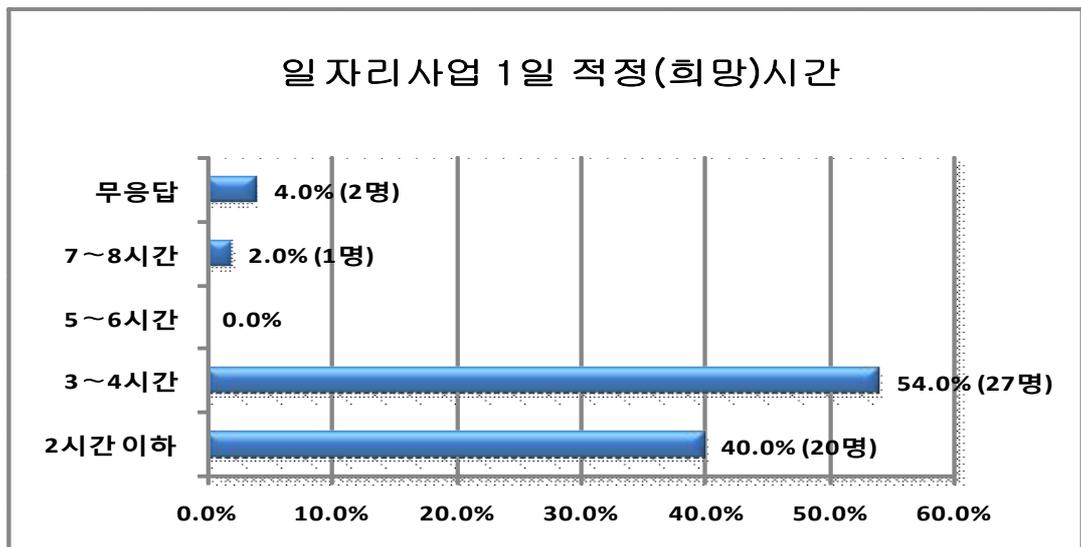
일자리사업장에서 일주일에 일하는 적정(희망) 일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5-15>와 같이 이일주일에 3일이 44명(88.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일이 2명(4.0%) 1일이 1명(2.0%), 5일 1명(2.0%), 무응답 2명(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5-15> 노인일자리사업 주당 걱정(희망)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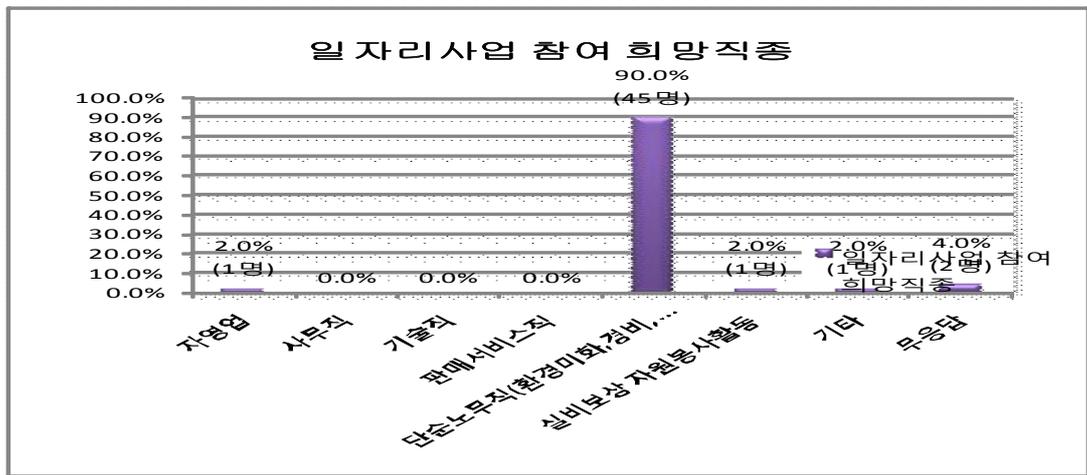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장에서 하루에 일하고 싶은 걱정(희망) 시간을 조사한 분석결과는 <그림5-16>과 같이 3~4시간이 27명 5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시간 이하 20명(40.0%), 7~8시간 1명(2.0%), 무응답 2명(4%)순으로 나타나 3~4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을 절반이상이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16> 일자리사업장에서 하루 일하고 싶은 걱정(희망)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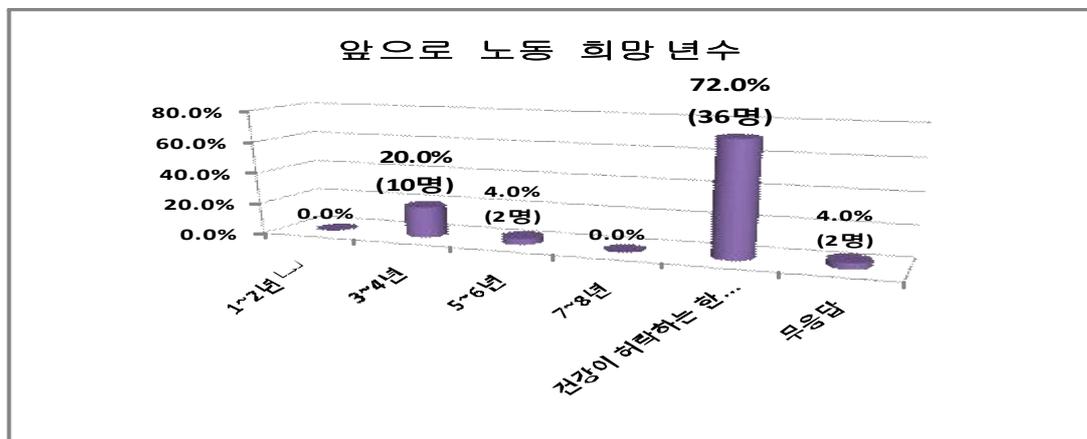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향후 참여하고 싶은 희망직종에 대한 조사한 분석결과는 <그림 5-17>과 같이 단순노무직(환경미화, 경비, 관리인, 가사관리, 집보기 등) 45명(90.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영업 1명(2.0%), 실비보상 자원봉사활동 1명(2.0%), 기타 1명(2.0%), 무응답 2명(4.0%)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5-17> 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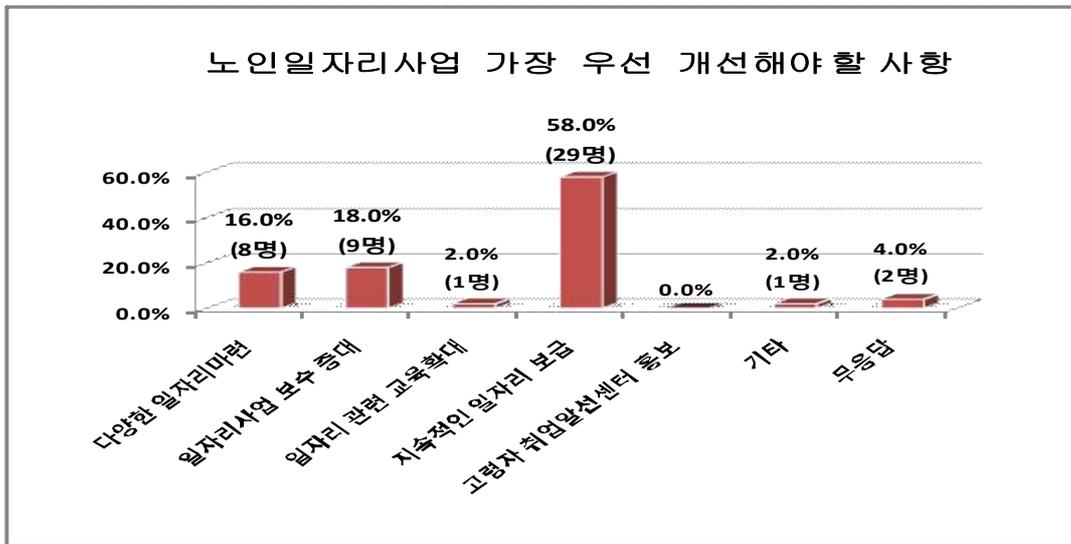
노인일자리사업장에서 앞으로 일하고 싶은 희망년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림 5-18>과 같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한다가 36명(7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향후 3~4년 계속 한다 10명(20.0%), 향후 5~6년이 2명(4.0%) 무응답 2명(4.0%)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18> 일자리사업 향후 참여 희망년수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 분석결과는 <그림-19>과 같이 지속적인 일자리 보급이 29명(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사업 보수증대 9명(18.0%), 다양한 일자리마련 8명(16.0%), 일자리 관련 교육 확대 1명(2.0%), 기타 1명(2.0%), 무응답 2명(4.0) 순으로 나타나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19>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



VI.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태와 참여만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참여기간 연장에 대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자리사업에 참여 희망년수에서 조사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참여하겠다는 노인이 7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대부분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에서 지속적인 일자리보급이 5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들의 실질적 소득에 기여하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을 보충적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노인의 상당수가 일자리사업의 참여로 발생한 소득이 20만원 정도이고 이는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사업의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사업 만족도는 72.0%로 절반이상이 만족한다고 하였지만 일자리사업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38.0%, 보통이다 38.0%, 불만족 한다 20.0%로 나타난 것을 보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일자리사업 불만족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2%가 급여가 적어서로 가장 많아, 소득창출의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문제 중 빈곤문제가 높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가 더욱 더 확대개발 되어야 한다. 즉,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지속적인 일자리와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희망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직종으로 단순한 노무직을 희망한 노인이 90.0%나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으로 예상 된다.

참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일자리사업 운영주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근거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사업이 이제는 중앙 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령자의 취업·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자리 희망직종에서 단순 노무직에 몰려 있다. 다수 노인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훈련으로 인한 노인의 능력개발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의 지속과 노인의 능력강화를 유도할 수 있고 사회적 참여의 지속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태와 참여만족도를 연구해 보았고 연구결과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대비책으로 일시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더욱 확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보다 나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제11기 핵심리더 연수원 이 승 곤

먼저 어르신의 신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각 문항에 ✓로 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르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어르신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60~64세 ② 65~69세 ③ 70~74세 ④ 75~79세 ⑤ 80세 이상

3. 어르신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전문대졸 ⑥ 대학교 이상

4. 어르신은 현재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 ① 기혼자녀와 함께 산다 ② 미혼자녀와 산다 ③ 부부만 산다
④ 혼자 산다 ⑤ 기타()

5. 어르신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임대 ③ 월세 ④ 전세 ⑤ 기타()

5-1. 어르신께서는 생활비를 월평균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10만원미만 ② 10~30만원미만 ③ 30~50만원미만
④ 50~100만원미만 ⑤ 100~200만원미만 ⑥ 200만원이상

6. 어르신의 생활비는 누가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② 본인의 재산 (퇴직금, 저축, 연금포함)
③ 자녀의 지원 ④ 정부의 생계보조 ⑤ 기타()

7. 어르신께서는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까?

- ① 국민연금 ② 개인연금 ③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8. 어르신께서는 현재의 일자리사업에 대해 어디서 아시게 되었습니까?

- ①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②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③ 지역신문방송, 생활정보지 ④ 친구 및 이웃을 통해서
⑤ 취업알선센터, 취업박람회 ⑥ 우연히 알게 되었다 ⑦ 기타()

9. 어르신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② 건강유지를 위해서
- ③ 일에 대한 보람 ④ 소일거리로 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 ⑥ 기타()

10. 어르신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어떤것입니까?

- ① 공익형 (거리환경개선, 환경보호, 교통질서, 공공시설관리 등)
- ② 교육형 (강사, 문화재해설, 숲 생태해설 등)
- ③ 복지형 (거동불편자돌봄서비스, 사회복지시설이용자돌봄지원, 청소년·아동상담, 선도활동 등)
- ④ 시장형 (식품제조판매, 특산물제조, 공산품제조, 공동작업장, 지하철, 택배, 세차 등)
- ⑤ 인력 파견형(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경비원, 가사도우미, 미화원, 식당보조원)

11. 어르신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만원미만 ② 30~50만원미만 ③ 50~80만원미만
- ④ 80~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12. 어르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몇 번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3. 어르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주일에 며칠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이상

14. 어르신께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일 몇 시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1~2시간 ② 3~4시간 ③ 5~6시간 ④ 7~8시간 ⑤ 9시간 이상

15. 어르신께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어르신께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소득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7. 어르신께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사업의 작업환경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어르신께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 사업의 동료간의 관계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어르신께서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적절 ② 보통 ③ 그저 그렇다 ④ 적절하지 않다 ⑤ 모르겠다

20. 어르신께서 참여하신 노인일자리사업의 불만족 하신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급여가 적어서 ② 직장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③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④ 근무시간이 길어서 ⑤ 적성에 맞지 않아서

21. 어르신께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로 얻는 수입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 어르신께서 참여하신 일자리사업에서 희망하는 소득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0만원미만 ② 20~40만원미만 ③ 40~60만원 미만
- ④ 60~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24. 어르신께서 참여하신 일자리사업에서 1주일에 몇 일이 일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25. 어르신께서 참여하신 일자리사업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 일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시간이하 ② 3~4시간 ③ 5~6시간 ④ 7~8시간

26. 일자리사업 가운데 어르신께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직종은 무엇입니까?

- ① 자영업 ② 사무직 ③ 기술직 ④ 판매서비스직
- ⑤ 단순노무직(경비, 관리인, 가사 관리, 환경미화원, 집 보기 등)
- ⑥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자원봉사활동) ⑦ 기타()

27. 어르신께서 앞으로 언제까지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 ① 1~2년 ② 3~4년 ③ 5~6년 ④ 7~8년
- 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겠다.

참 고 문 헌

보건복지부 2014, 『2006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

석사학위논문

박경자 2009, 『고령화 사회의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영은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에 따른 생활태도 변화에 관한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서수원 2007,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만족도와그개선방안에관한연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논 문

임춘식 2003, 『노인일거리 창출 활성화 방안』, 노인문제 대책 학술세미나자료집

단행본

양철호 2003,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들』, 노인일자리마련 정책 토론집.

정기간행물

통계청 2005,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5.1월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통계청 2006, 『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